

山林休養需要의 豫測
- 10개 山岳型 國立公園을 중심으로 -
윤여창¹·윤영일²

A Projection of Future Demand for Forest Recreation in South Korea
Youn, Yeo-Chang¹ and Youn, Young Il²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the mid-term demand for forest recreation in South Korea.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on participation in forest recreation in the past, the number of visitors to 10 mountainous National Parks was taken as the surrogate variable for forest recreation consumption while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and length of working hours per week were assumed to be the explanatory variables. Since there was a high level of correlation between income and working hours, the demand function for forest recreation was estimated by simple regression: one as a function of income and another as a function of working hours.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forest recreation with respect to income level was 0.65 while that was respect to decrease in working hours was 4.7. The participation rate of forest recreation in South Korea in the year 2010 would double from the present level when we consider the income as the only determinant variable. If five days working per week prevails by 2010, the participation at the time could also double.

Key words : Forest recreation, Demand projection, Forest policy

1. 서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 핵가족 현상, 또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의하여 휴양에 대한 현대인의 욕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크고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녹색은 건강이라는 등식이 통념화되면서 녹색에 대한 갈증은 야외휴양의 주류가 녹색과 함께 하는 현상을 낳게 하였다. 주요 녹색공간의 대부분이 산림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이러한 추이에 따라 산림에서 가능한 휴양형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있다.

그러나 새롭게 공급되고 있는 산림휴양 기회 대부분을 불행히도 산림의 공공식 휴양 기회 제공과는 거리가 있는 골프장, 스키장, 대규모 레조트 등 관광 위락 중심의 기업형 휴양 시설이 주도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러한 휴양시설은 대부분의 경우 산림을 개발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임업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산림 부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휴양수요는 좁은 국토, 제한된 자연자원의 부족 상황으로 인하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휴양공급을 선도하지 않으면 결국 산림휴양에서 임업 축이 주도권을 빼앗기고 위에서 예로 든 기업형의 관광위락지가 늘어날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won 441-744, Korea
2. 공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Department of Forestry,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314-701, Korea

가능성이 높으며, 증가하는 휴양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임업적 측면에서 찾아내어 변화에 대처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II. 연구목표 및 연구방법

1. 연구목표

현재 전체적인 휴양수요증가는 굳이 통계치를 들지 않더라도 가히 폭발적이며 도시 주변이 대부분 산악지대인 지형적 특징상 산림휴양 수요 역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 수요는 반드시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고 우리 나라의 한정된 산림자원의 성격상 현재의 휴양림 체제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휴양림 체제가 그 성격상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공급되자마자 수용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분론 현재의 휴양림체제도 증가하는 휴양수요에 부응한 정책이었으나 장기적인 휴양수요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이 예상되어 다른 방식의 산림휴양기능 공급대책도 연구되어 제한된 산림자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산림의 휴양기능을 공급해야 대규모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연구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작업은 예측 가능한 수요의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휴양수요는 그 성격상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예측은 항상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하여 단기 혹은 중기의 예측은 현재와 과거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빙성있는 예측이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다. 이런 연유로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산림정책의 특징인 장기예측은 피하고 2010년까지의 산림휴양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산림휴양의 정의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데는 우선 산림휴양의 의미를 적절한 범주에서 한계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휴양'이란 이미 일반에게 익숙한 등산이나 제곡에서의 물놀이, 산책 등의 여가이용 형태로 간단하게 보여질 수도 있으

나, 임업에서 '산림휴양'을 논하게 되면 지금 까지 알려진 휴양의 형태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 즉,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여가 이용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 형태는 산림경영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공익기능의 하나인 '휴양기능'과 연관된 것이며 현재의 '휴양림'과는 달리 모든 경영림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며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주게 되는 임업-산림휴양-관광의 연계가 가능한 형태이다.

위의 산림휴양의 경우 현재는 우리 사회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나 미래에는 그 수요가 임업 측의 공급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재수요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산림휴양'이란 이러한 잠재적인 수요와 위에서 이미 언급한 일반적인 산악형 휴양형태를 말하며 전체 산림휴양의 수요에 포함시켰다. 산림휴양의 성격상 흔히 관광수요와 연계하여 수요를 산출하는 것은 우리의 실정상 '휴양'과 관광이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 관광수요와 연관시켜 산림 관련 휴양수요(약 35%정도로 흔히 추정)를 추정하는 것은 생략하고 직접적인 산악관광 형태인 산악 국립공원 방문을 현존하는 산림휴양의 형태로 선택하였다.

2) 수요결정 변수

휴양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구, 소득수준, 자동차보유율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때때로 도시 집중률, 혼잡도(변우혁 외, 1991) 등도 요인으로 선정되고 있다. 2010년까지의 장기예측이 목표인 본 연구에서는 장래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인구, 집중 정도가 이미 완료된 도시화율 또는 혼잡도(밀집도) 등은 수요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꾸준한 변화가 예상되는 1)소득수준, 어느 정도 이상의 여가시간을 요구하는 미래형의 산림휴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2)여가시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3)자동차보유율의 세 가지 요인 등을 선정하여 수요에 관한 예측을 시도하였다.

소득수준은 GNP성장에 의거한 가처분소득(1990년 기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여가시간은 일반적인 휴가시간으로 이해되는 여름이나 법정공휴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의 여가

를 중요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자동차보유율은 자가용만을 선정하여 예측을 시도하였다. 이 세 변수는 현재의 관광수요 예측에 아주 중요한 인자로 일상적으로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미래형의 산림휴양'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3) 장기수요예측 시나리오 구성

두개의 시나리오로 장기의 휴양수요를 예측하였는데 근로시간은 최근에 이미 몇몇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격주 토요일 근무제 혹은 주 5 일제를 감안한 시나리오와 선진국에서도 근무시간이 반드시 소득증가에 따라 동일하게 감소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근무시간 변동에 현재까지의 감소추세를 바탕으로 1976년부터 1994년까지의 추세인 연간 0.183시간의 감소추세를 연장하여 작성된 시나리오3, 근무시간의 급격한 감소를 예상한 시나리오4로 분류하여 추정하였다. 시나리오4의 경우 2000년도에 45시간, 2005년에 42.5시간, 2010년은 40시간으로 임의 결정하였다.

GNP성장률에 따른 국민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GNP성장률이 예측이상인 경우, 평균적인 경우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는데 GNP성장의 시나리오는 일본의 성장패턴을 기본으로 설정되었다.

시나리오 1: GNP의 순조롭지 못한 성장

GNP성장률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감소 등을 고려, 이 중에서 신경제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GNP성장률 6.9%에 못 미치는 5.49%가 2000년까지 지속되리라 보고 그 이후는 2001-2010년은 3.76%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2: GNP의 평균적인 성장

시나리오 1과 다른 변수는 동일하나 성장패턴이 예상대로 되는 경우를 설정함. GNP의 성장률이 2000년까지는 6.9%, 2000-2010년은 4.27%로 설정함.

인구의 변동은 각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인구 증가가 평균적인 경우와 높은 경우로 설정하였다.

<표 1> 장기휴양수요 예측에 이용된 인구의 변동

(천인)		
연 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1995	44,869	44,869
2000	46,792	46,792
2005	48,233	48,233
2010	49,675	50,075

4) 수요함수 모델 설정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전대수(Log-log)모형을 쓰기로 하고 아래의 일반형태에서 모델설정을 시도하였다. 휴양수요의 추정에 이용된 독립변수들은 여가시간(근로시간의 역수), 승용차 보급률, 가처분소득으로 기본 모형은 아래와 같다.

$$\ln RD = A_0 + A_1 \ln X_1 + A_2 \ln X_2 + \dots + A_n \ln X_n$$

ln: 자연대수 RD: 휴양수요

A₀: 상수항 X_n: 독립변수

A₁, ..., A_n: 독립변수의 계수

5) 수요추정에 이용된 자료

산림휴양수요의 장기예측을 위하여 활용이 가능한 유일한 수요치는 국립공원의 탐방객수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20개의 국립공원중 15개의 산악형 국립공원을 택하고 이 중에서 다시

<표 2> 장기휴양수요 예측에 이용된 자료 (1990년 기준)

연 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주당 근로 시간	
	총실질가처분 소득(10억원)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원)	총실질가처분 소득(10억원)	1인당실질 가처분 소득(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2000	273,000	5,845,000	312,000	6,675,000	46.3	45
2005	328,000	6,819,000	398,000	8,227,000	45.7	42.5
2010	385,000	7,764,000	478,000	9,553,000	44.4	40

*총 실질 가처분소득 = 1인당실질가처분소득 × 해당년도 인구

설립 후에 어느 정도 했수가 지난 국립공원 10 개소만 선택하고 1976년 이후의 통계만을 사용하였다. 다른 통계치 즉, 휴양림의 방문객수 등은 이제 설립된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중요한 독립변수인 여가시간은 근로시간의 증감을 대입시켜 역관계의 함수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여가시간에 활용하는 시간이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가시간에서 주말의 여가(주간 근로시간의 역수)는 산림휴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미래의 산림휴양의 주 수요가 장거리여행이 주로 행해지는 본격적인 휴가기간이 아닌 주말 여가기간 동안에 행하여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말여가시간에 대한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총 근로시간을 대입하여 역으로 추정하였다.

Ⅲ. 휴양수요 예측 결과 및 고찰

1) 수요함수 추정결과

세 가지 독립변수 중 자동차 보유 대수와 실질가처분소득의 변수는 성격이 비슷하고 서로 자기상관성이 너무 높아($r=0.98360$) 실질가처분소득(1990년 기준)만 취하였다. 애초에는 실질가처분 소득과 근로시간의 역수를 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방정식을 쓰려했으나 이 두 변수 역시 성격은 다르나 서로 높은 자기상관성을 보여(전체년도 $r=-0.8349$, 특히 1982년-94년에는 -0.9434) 다중공선상의 문제로 영향력의 추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실질가처분소득, 여가시간(근로시간의 역수)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취하는 두 개의 단순회귀 방정식으로 휴양수요를 추정하였다. 자료 분석시 근무시간의 경우 1982년을 기준으로 한 전후년도와의 차이가 전체적인 예측에 난조를 나타내었고 직접 선형방정식을 구해 본 결과 설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adjusted R-squared : 0.4625, Durbin-Watson stat : 0.3123) 더미변수를 이용하기로 결정, 1976년부터 1981년까지는

〈표 3〉 휴양수요 예측에 이용된 자료

obs	VISITOR	VMAN	REALI	PREIN	POP
1976	4666701.	0.130337	1288008.	4.61E+13	35805000
1977	5681431.	0.156294	1474246.	5.36E+13	36351000
1978	6411238.	0.173859	1734402.	6.40E+13	36876000
1979	5250711.	0.140367	1830517.	6.85E+13	37407000
1980	6100561.	0.160638	1674049.	6.36E+13	37977000
1981	7167485.	0.185975	1683776.	6.49E+13	38540000
1982	8962000.	0.229125	1770640.	6.93E+13	39114000
1983	9424000.	0.237285	1963888.	7.80E+13	39716000
1984	9702000.	0.240744	2154804.	8.68E+13	40300000
1985	9311000.	0.229149	2308929.	9.38E+13	40633000
1986	9938000.	0.242136	2613154.	1.07E+14	41043000
1987	10722000	0.258623	2962915.	1.23E+14	41458000
1988	12382000	0.295746	3255807.	1.36E+14	41867000
1989	14883000	0.351911	3408793.	1.44E+14	42392000
1990	15991000	0.373621	3745116.	1.60E+14	42800000
1991	15799000	0.365531	4086451.	1.77E+14	43222000
1992	16293000	0.373436	4251706.	1.86E+14	43630000
1993	17030000	0.386799	4465921.	1.97E+14	44028000
1994	18254000	0.410858	4764713.	2.12E+14	44429000

*visitor:국립공원 방문객(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오대산, 덕유산, 주왕산

* vman = visitor / pop(인구)

* Reali =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 (한국은행, 1990년=100, 1994년 값은 추정치)

* Prein = Reali * Pop(인구)

더미값을 0로, 1982년부터는 1로하여 추정하였다. 또 소득변수는 예측에 문제가 있어 1인당 실질가처분 소득과 1인당 수요, 전체 실질가처분 소득과 전체수요로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소득의 경우, 1인당 실질가처분 소득의 경우는 예측치의 결과가 너무 낮아 더미변수를 쓰고, 총 실질가처분 소득은 더미변수 없이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시간변수는 두 종류의 추정이 차이를 보이지 않아 1인당 수요만 추정하였다. 모든 독립변수는 자연대수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실질가처분 소득에 대한 수요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 1인당 실질가처분 소득에 의한 1인당 산림휴양 수요함수 추정결과

$$\ln RDM = -11.1961 + 0.6539 \ln INCOME(M) + 0.2259D$$

(-10.2070) (8.5526) (3.3835)

RDM : 1인당 휴양수요
 INCOME(M) : 1인당 실질가처분 소득
 () : t 값
 adjusted R-squared : 0.9397
 D : 더미변수

* 총 실질가처분 소득에 의한 총 산림휴양 수요함수 추정결과

$$\ln RDP = -12.0429 + 0.8729 \ln INCOME(S)$$

(-6.5398) (15.2859)

RDP : 총 휴양수요
 INCOME(S) : 총 실질가처분 소득
 () : t 값
 adjusted R squared : 0.9281

* 주당 근로시간(여가시간의 역수)에 의한 1인당 산림휴양 수요함수 추정결과

$$\ln RDT = 16.7412 - 4.7237 \ln HOUR + 0.5452D$$

(6.0572) (-6.7285) (9.7489)

RDT : 1인당 휴양수요
 HOUR : 주당 근로시간
 () : t 값
 adjusted R-squared : 0.9128
 D : 더미변수

2) 장기 휴양 수요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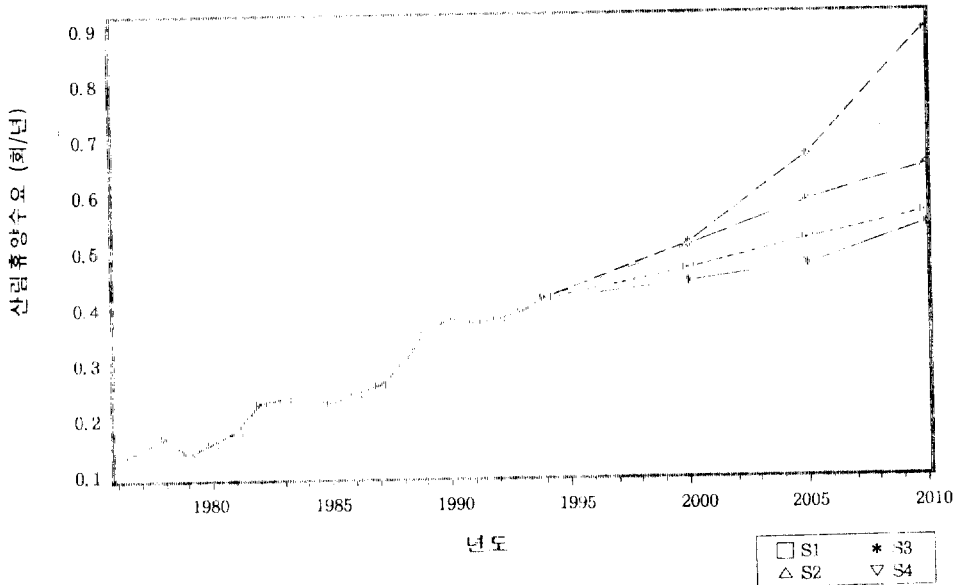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에 따른 휴양수요는 근무시간의 변화보다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나리오 2의 경우 그에 못지않은 수요증가를 보인다. 수정결정계수(adjusted R-squared)는 소득증가가 근무시간감소와 비슷하나 산림휴양수요의 실질소득탄력치는 1인당수요인 경우는 0.65, 총 수요인 경우는 0.87인데 비하여 근로시간의 감소(여가시간의 증가)에 대하여는 탄성치가 4.7으로 훨씬 탄력적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이 감소되면 될 수록 훨씬 빠른 휴양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두 독립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는 1인당 산림휴양수요의 변화가 더 큰의미를 가지며 이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2000년에 이미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산림휴양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2010년에는 거의 총인구수에 육박하는 규모의 수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실제로 상당히 느린 증가추세이며 이것은 예측치에 순전히 10개 산악형 국립공원의 방문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여가시간의 변화에 따른 휴양수요의 증가는 특히 근무시간의 급속한 감소를 예측한 시나리오 4의 경우에서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선진국들에서도 과거 20-30년간에 걸친 여가시간의 변화추이가 느린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예측은 매우 불투명하다. 그러나 1994년까지도 평균근로시간이 여전히 45시간을 넘어 토요일에도 최소한 반나절 근무를 하는 상황이었다가 1995년 이미 재벌기업들,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선두로 격주 5일 근무로 돌입한 것을 고려한다면 예측보다 실제의 변화가 훨씬 빠른 진행을 무시할 수도 없다. 5일 근무제가 예상되는 시기에(시나리오 4의 2010년) 이미 인구수와 거의 동일한 휴양수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추정에서 제외된 국립공원들, 또 국립공원, 도립공원, 휴양림 등에 대한 휴양수요를 감안한다면 산림휴양은 아마도 일상화 할 듯이 보인다. 실제로 산림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1990년에 1인당 산림휴양수요가 1.78회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명백하다.

〈표 4〉 시나리오 1, 2, 3과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산림휴양수요

연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RDM (회/년)	RDP (천명)	RDM (회/년)	RDP (천명)	1인당 휴양수요 (회/년)	
2000	0.4576	23,441	0.4991	26,408	0.4362	0.4990
2005	0.5061	27,588	0.5722	32,661	0.4639	0.6539
2010	0.5510	31,730	0.6310	38,324	0.5316	0.8704

* RDM : 1인 산림휴양수요 RDP : 총 산림휴양수요
 시나리오 1: GNP의 손조롭지 못한 성장 (현재성장보다 낮음)
 시나리오 2: GNP의 평균적인 성장 (현재의 기대치)
 시나리오 3: 근무시간의 감축이 현재의 추세로 진행
 시나리오 4: 근무시간의 급격한 감축(2000년 45시간, 2010년 40시간)



〈그림 1〉 시나리오에 의한 산림휴양수요의 변화 (1인당 산림휴양수요)

IV. 결론 및 제언

1인당 소득의 증가, 최근의 토요일 격주휴무제, 또는 주 5일 근무제 등에 따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말 여가시간의 현저한 증가, 승용차 보유의 급격한 증가로 휴양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근무시간의 감소와 실질가처분 소득의 증가 중 휴양수요증가를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소득증가이며 이것은 근무시간의 느린 변동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4와 그림 1)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산림휴양수요를 매우 제한된 범위인 10개 국립공원 방문객 수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휴양수요는 예측결과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물론 휴양수요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조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 수요가 정체상태에 도달한다. 그러나 '산림휴양'이란 일반적인 관광이나 위락이 아닌 주말에는 거의 일상화될 수 있는 여가선용의 형태인데다가, 수요유발조건(주말여가시간, 소득증대)은 이미 상당부분이 완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휴

양시설이(임도-산책로, 산촌과의 휴양-관광연계) 갖추어진다면 새로운 수요의 증가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격주 토요일 휴무제나 주 5일 근무제는 주당 근로시간이 표. 3의 47시간 범주에서 40시간(주 5일 근무) 또는 45시간으로 감축되어 그만큼 주말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어느 정도의 장거리 여행이나 근거리 산림에 대한 휴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10개 국립공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하여 전체적인 휴양수요의 패턴이나 형태를 모두 내변할 수 없음을 사실이나,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선 국립공원의 수용능력을 감안할 때 그 수요의 방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휴양자원이 한정된 우리 나라의 경우 국립공원 외의 산림으로 향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휴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었으나 도시 주변이 예외 없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경우 산림휴양은 그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위락형의 여가이용과는 달리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며 가족단위의 휴양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휴양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훌륭한 경관과 수량이 풍부한 계곡을 선호하여 수용에 한계가 있고 기존의 편의시설 중심의 현 '휴양림' 개념에서의 개발이나 산림외에도 임업의 활성화에 따른 산림수변의 산촌에서의 숙박, 주위 산림에서의 생태관광, 산책 및 등산을 하는 휴양방식을 통하여 주민들에게는 휴양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임업에게는 산림의 휴양기능을 통한 위상의 향상을 가져오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1995년) 전국에 개설된 휴양림은 총 41개소이고 1994년의 37개소를 이용한 방문객이 150만 명에 불과한 산림청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발적인 잠재수요는 현재의 휴양림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임업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근거리 휴양의 방대한 수요를 임업경영을 통하여 충족시키고 있는데 우리 나라처럼 휴양림이라고 산림을 따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림이 휴양기능을 수행하게끔 경영을 유도하여 시행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임업경영에 필수적인 임도는 자연스럽게 산책로가 되며 그 산책로 주변에는 벌채한 나무들이 쌓여있고 특별히 휴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나 주택가 부근 또는 대도시 주위의 산림에서는 경관조성과 휴양기능의 함양에 힘을 쓰고 있다. 당연히 동일한 형태의 임분에서도 어느 지역은 휴양기능이 높고(예: 인구 밀집지역, 수변공간 지역) 어느 지역은 낮을 수가 있으며, 휴양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경우는 휴양기능을 위한 경영에 중점을 주는 방식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

또 모든 산림이 휴양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변의 산촌이나 마을에게 계절이나 유행을 타지 않고 비록 액수는 적으나 거의 고정적인 관광수입이 가능하여 지역주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여 임업경영에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휴양림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지 못하여 심지어 인근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2010년까지의 예측의 결과는 삼림휴양의 수요가 방대한 규모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휴양수요는 현재의 휴양림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수요에 대처가 가능한 공급방식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어야하겠지만 임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물질 생산 기능(목재, 산채, 약재, 수실 등)과 휴양기능의 연계로 산림전체가 휴양기능을 수행하기 유도하는 방법이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의 실정에 공익기능 제공과 임업의 위상증진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한다.

인용문헌

1. 경제통계연보. 1995. 한국은행
2. 교통개발연구원. 1988. 장기관광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교통개발 연구원
3. 국토개발연구원. 1988. 휴양 위락형태의 변화 및 공간확보 방안연구. 관광/위락형태 분석 및 변화전망을 중심으로.
4. 김상관 등. 1992. 환경개선기능.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계량화연구(2차년도). 임업

- 연구원. 과학기술처. 27-62
5. 김용환. 1992. Micro TSP.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계량분석과 활용. 영진출판사
 6. 매일경제신문. 1993. 1993 6. 18일자
 7. 윤여창. 1982. 산림휴양 수요 및 편익에 관한 연구, 덕유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조순, 정운찬. 1990. 경제학 원론. 법문사. p. 29-30
 9. Lohman, M. 1985. "Darum brauchen wir Wald" BLV-Verlag. München
 10. Mayer, H. 1984. Waldbau auf soziologisch-kologischer Grundlage. Fischer. Stuttgart, New York.
 11. Niesslein, E. 1985. Forstpolitik. Ein Grundriß sektoraler Politik. Verlag Paul-Parey Hamburg, Berlin.